

6.25참상 되새기며 기념예배 드려

보수교단협, 제2회 신학세미나도 함께 가져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상임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6월 23일 오전11시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제66주년 6.25상기 기념예배 및 제2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임회장 한홍교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조경근 목사(예장개혁 총회장)의 대표기도, 김길중 목사(한국메시아니교회토라공동체연합 회장)의 성경봉독, 이이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이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민족의 비극 6.25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비록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이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화마저 세속화되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배는 계속해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광영민 목사(예장예능 총회장)가 ‘국가안정과 통일’

일’, ‘형의회 회원교단 발전’, ‘한국교회 동성애 소벌·차별금지법 취소’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 한국교회가 걱정하는 동성애 소벌, 차별금지법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며, “보수를 지향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가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고, 두려움 없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

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아가자”고 전했다.

이후 김준희 목사(서기)의 헌금기도, 민정식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정병구 목사(법인이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세미나는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 사회로 조경근 학장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 김길중 학장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광영민 교수가 ‘성경원형 입장에서 본 동성애’란 주제로 각각 강의를 인도했다.

민족복음화운동여성본부, 평화 염원 구국 금식 기도회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기독교여성 한뜻 한마음으로 한반도 평화기원

기독교여성들이 주체가 된 민족복음화운동여성본부(총재 유순임 목사)가 6.25전쟁 66주기를 맞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6.25상기 기도대성회를 개최했다.

민족복음화운동여성본부는 지난 6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남과 북은 왜 하나가 못되나·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란 주제로 ‘제9차 6.25상기 구국 금식 기도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여성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

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에 앞서 유순임 여성본부 총재는 개회인사에서 “동족 상잔의 역사적 비극 앞에 우리는 화기와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며 통일의 대한민국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주실 것”이라고 인사했다.

예총연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임은선 대표회장의 개회선언과 유순임 여성본부 총재의 개회인사에 이어 총장사단장 한경희 목사가 ‘우리의 결단’이라는 순서로 참석자들의 뜻을 모았으며 상임회장 이명숙 목사의 선창 하에 참석자들이 다같이 일어나서 구국과 평화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상임부총재 이길자 목사의 대표기도와 상임회장 하인자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세계 10대 강국 중에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은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이는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6.25와 같은 전쟁을 원치 않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머지않아 전쟁없이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6.25전쟁의 뼈아픈 역사 상기

한국기독교부흥협, ‘평화통일을 위한 6.25 성회’ 목양교회서 개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사장 송일현 목사, 대표회장 정형희 목사)이 하한기부는 지난 6월 26일 서울 신정2동 목양교회(담임 임준식 목사)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6.25 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회는 6.25라는 뼈아픈 역사를 상기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대표회장 정형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일꾼이 되길 기원했다.

장 목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역사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이라며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 되는 날을 꿈꾸며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목사는 “우리가 기도해 힘쓰고 복음전파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내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게 지키실 것”이라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데 힘써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회는 상임회장 양병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고 우병만 목사(뉴욕교회일보 대표)는 대표기도자로 참여했으며 서기 김동호 목사의 성경봉독, 회계 이길중 목사는 헌금 기도 등의 순으로 열렸다.

이날 성회 강사로 나선 이윤규 목사(중경 대표회장)는 ‘전쟁 없는 세상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PCUSA 비복음적 정책 활동에 깊은 우려

한교연 보수위, 예장통합 이단 해벌 움직임에 자제 요청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목사, 이하 보수위)는 지난 6월 30일(목)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5-4차 회의를 열어 이단사이비와 불간전한 신앙행위로부터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보수위는 미국장로교회 총회(PCUSA)가 최근 동성애를 찬성하고, 총회석상에서 이슬람

지도자를 세워 알라에게 기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반기독교적 행위로 규정했다.

보수위는 미국장로교회가 이 같은 비성경적인 정책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교류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들에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장총 제8회 ‘장로교의 날’ 개최

‘한국교회 연합하여 국민출애굽, 복음통일 이루자’ 라는 주제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백남선 목사)에서는 2016년 7월10일 제8회 ‘장로교의 날’을 새이덴교회에서 개최했다.

2009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한 ‘장로교의 날’은 장로교전통예배와 성찬식, 그리고 비전선포식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에 장로교회의 뜻을 발표하는 순서를 거쳐왔다.

급년제8회 장로교의 날에는 한국교회 연합하여 국민출애굽, 복음통일 이루자 라는 주제로 통일을 향한장로교회의 의지를 다졌다.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제1부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한 기수단 입장에 이어 대회의 주제영상, ‘100회 총회 감사, 그리고 비전70’이 시연되었으며 대회장인 백남선 목사의 개회사 및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제2부 신상현 목사(교신총회장)의 인도로 장로교 전통예배가 진행, 박부용 목사(합동총회장)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가?’ (베후3:11-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성찬식은 채영남 목사(통합총회장)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찬양은 새이덴교회, 영안교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찬양대가 ‘할렐루야’를 연주하고 특별찬양으로 한국장로성가대가 출연했다.

제3부에는 비전선언식으로 장로교정체성회복, 개혁의지, 한반도 통일, 다음세대 육

성 등의 내용의 선언과 통일금급, 탈북자 돕기, 다문화사회통합등의 신전강령 및 구조제정이 있었다.

마지막 시간으로 회원교단 총회장 사랑마을네트워크 MOU대표를 모두 등단하여 하나 되는 순서를 거쳤으며 이번 대회에는 탈북청소반, 북한관련NGO단체 등도 함께 참여하여 통일문제에 관한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는 2017년 종교개혁500주년을 앞두고 제8회 장로교의 날을 개최하는 이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 되며 민족의 복음통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야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오직은 해(Soli gratia), 오직 성경으로(Soli Scriptura)으로 돌아가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기본을 확인하는 ‘장로교의 날 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CBS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 개최

11일부터 CBS홈페이지에서 신청

CBS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우리 자녀들, 즉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CBS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을 개최한다.

<CBS성경암송대회>는 성경 ‘요절’을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 하늘의 ‘복’과 ‘소통’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요.절.복.통.’이라는 타이틀을 짓게 되었다.

이 행사는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함으로써 다음세대와 교회학교, 한국교회를 바로세우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교회학교 또는 가정에서 성경암송을 하고 있거나 성경암송에 관심이 있는 교회학교

자녀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교회학교 유년부, 아동부, 중등부로 나누어 개인전과 단체전(6명 이상, 12명 이하)을 펼치게 되고, 말씀 암송을 울동과 워십, 찬양 등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경연도 열려 그야말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접수는 7월 11일(월)부터 CBS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오는 10월 15일 1차 예선, 11월 12일 2차예선을 거쳐 오는 12월 본선대회가 열리게 되며, 본선대회에서 암송왕에 오르게 되면 개인/단체를 나누어 시상한다.

또한 성경 1189장 전체를 암송하는 의미 있는 영상캠페인도 마련된다. 장세기부터 요



한계시목까지 성경 전체 1189장을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직접 암송하는 모습을 담아 2017년 종교개혁일에 봉헌하게 된다. CBS는 성경암송 대회와 함께 1189 성경암송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를 모집한다.

문의전화는 02-2650-7931이다.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

개교 30주년 맞아 기념행사도 열어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설립자/총장: Dr. James Song)는 지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세인트 루이스 본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6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식전 행사로 집중세미나(특강)가 열렸으며, 그밖에 Global Leadership Forum, 학위수여식에 이어 개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뮤직페스티벌이 음악과 재학생들과 세인트 루이스 지역 미국교회들

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역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7일 오전에 진행된 Global Leadership Forum은 러시아 복음주의기독교연맹 회장 Alexander Trofimovich Semchenko 회장, 미안바 양관대학교 Pro Kaung 총장, 뉴욕 NY Fund Ruhm Jung Roe 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오명환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총동문회장 김금윤 박사의 기도, 이사



장 Lindell F. Shumake 미주리 주 하원의원의 메시지, 총장 James Song 박사의 격려사, 성일교회 김경근 목사의 축사, Nick Guccione 웰즈빌 시장의 웰즈빌시 명예시민권 수여, 마지막으로 미주동문회장 강대혁 박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서 김준규 박사(리더십),오인숙 박사(기독교상담)를 비롯한 45명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가 배출되었으며 특별히 미안바 양관대학교 Pro Kaung 총장, 러시아 복음주의기독교연맹 회장 Alexander Trofimovich Semchenko 회장, 뉴욕 NY Fund Ruhm Jung Roe 회장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과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아 Midwest University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미안바 최고의 대학교인 양곤대학교와 Midwest University의 MOU 체결의 시간도 가졌다.



CTS장로찬양단, 세계합창올림픽 출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제9회 World Choir Game 출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CTS장로찬양단(단장 조준호)’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제9회 2016 월드 코어 게임(World Choir Games) Senior Choirs 종목

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4일 출국했다.

합창을 통해 인류에 증진과 민족 간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월드코어 게임’은 합창올림픽으로 불린다. 2000년 이

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며 이번 9회 대회에서는 세계 80개국 450개 마추어팀 소속 단원 2만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2011년 3월 창단된 CTS장로찬양단은 70개 교회 120명의 초교파 장로단원들로 구성됐으며 교회초청연주, 미국 케네디를 연주, 국가조찬기도회, 남북조찬기도회 등 국내 외에서 30여 차례 공연하며 복음을 전해왔다.

한편 CTS장로찬양단은 세계합창올림픽 출전에 앞서, 5일 러시아 모스크바 korstan Moscow 콘서트홀에서 ‘한·러 수교 26주년 기념 연주회’를 개최했다.

부산신학교 제1학기 종강예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 부산신학교(학장 고영권 목사)는 지난 6월 30일(목) 저녁 7시 순복음빛남교회(담임 조은혜 목사)



에서 2016년 제1학기 종강예배를 드리고 한 학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가르침을 주신 교수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용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대표기도, 신학생 학우들의 찬양,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 학기동안 배움의 열정을 불태운 학생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의 자세로 끝까지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학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배길진 학생회장의 한금기도, 직전 회장 한명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12회째 목회자 기도모임, 기도운동 확산 기대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는 지난 6월 14일(화) 순복음광산목양교회(담임 김정식 목사)에서 제12회째 목회자 기도모임을 가졌다.

매일 둘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이 날은 광주지방회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날이다. 신앙생활은 기도로 가는 길이요 기도로 사는 삶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광주지방회 목회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다.

광주지방회 목회자들은 “이르시되 아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눅 22:46)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1년째 되었다. 물론 회원목회자들이 100%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회원교회를 돌아가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사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분위기



가 훨씬 뜨거워졌다.

이제는 다음 달 기도회 장소를 예약하는 선의 경쟁도 생겼다. 지난번 나주에 있는 순복음광산목양교회(담임 김정식 목사)에서 가진 기도회는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기도회가 되었다.

김정식 목사와 사모는 지방회 목회자들과 함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섬겨 온 시골목회에 너무나 영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정식 목사와 사모가 기도용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순수 준비하신 진수성찬으로 섬겨주었다. 이날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날이었다. 바라기는 광주지방회에서 시작한 기도의 열매가 교단전하 모든 지방회와 전 교회에 번져가기를 소망한다.

바른 복음전파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6월 28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주천비교회(담임 윤해영 목사)에서 정기월례회를 갖고 이슬람과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비론 복음전파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조병희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박영욱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겔 3:16-21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 말씀대로의 복음전파에 힘



쓰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재무 정영진 목사의 한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축

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순복음주천비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성애반대 기도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7월 1일(목) 전원교회(담임 배용환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갖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할랄 식품단지 조성 반대, 동성애 반대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의 인도로 유용근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31:3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여잡고 절대 순종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송하영 목사(여수문화교회)의 전라지방회 가입인사가 있었으며 지방회 증경 회장 최형택 목사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무처리에 들어가 총회 상회비납부와

관련하여 회장의 실행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한 설명, 8월 수련회 일정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월례회 일정이 끝난 후 지방회 임원들은 과로로 병원에 입원중인 서은자 목사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쾌유를 위해 기도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 감당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 삼산순복음교회)는 지난 7월 4일(월) 오전 11시 늘푸른교회(담임 윤광진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부흥과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연재만 목사(순복음강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재광 목사(생명샘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윤광진 목사(늘푸른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민 20:10-12 말씀을 본문으로 만민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경받는 모세도 지방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치는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하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한 것처럼 마지막 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될 것”을 강



조했다.

이어 이동수 목사(한화순복음교회)가 드린 예를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진행으로 재무 신병설 목사의 7월 재무 및 회계보고, 총무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와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교단의 발전과 충북지방회 신하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 한 다음 최동순 목사의 마무리 기도회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늘푸른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는 지난 7월 5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참좋은교회(담임 오세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탁정진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박행남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마 12:17-21 말씀을 본문으로 ‘이기는 것이 목회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목회자들이



다 될 것을 역설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서기 오세준 목사의 한금기도 후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오세준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이경진 목사의 총무 및 재무보

고 회계 오세준 목사의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육준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를 모두 마치고 순복음참좋은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세계한민족사명자연합회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

세계한민족사명자연합회



세계한민족사명자연합회(대표회장 박경호 목사, 상임회장 정형기 목사)는 지난 6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성동구 금요동 소재 열방제자교회(담임 양준원 목사)에서 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세사연 사무총장 김형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박경호 목사의 인사말, 최병호 목사의 대표기도, 서삼석 목사의 성경봉독, 박하숙 목사의 특송, 조성자 목사의 시 낭송, 손양도 목사(성신교회) 원로, 백



석총회 증경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손 목사는 시103:1-5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은택을 전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성령을 송축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홍선화 권사의 헌금전양 후 상임회장 정형기 목사의 축복기도, 남북문화예술단장 김동철 선교사의 모노드라마 공연이 있었으며 기독교교육방송 대표이사 김규임 목사의 격

려사, 상임회장 정형기 목사의 내빈소개, 운영회장 이기주 목사의 광고, 남보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권병기 목사의 사회로 기도회로 이어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북통일과 탈북자를 위해’, ‘무슬림 세력 퇴치를 위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입법 자지를 위해’, ‘세계 한민족 사명자연합회 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하시 목사, 이흥희 목사, 류신철 목사, 강희경 목사, 양준원 목사, 김중오 목사가 각 주체별기도를 인도했다.

흔들림 없는 반석같은 믿음 강조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홍영광 목사)는 지난 6월 30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사랑교회(담임 홍영광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과 각 개교회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사회, 부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조성진 목사(충민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홍영광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고후 5:1-7 말씀을 본문으로 ‘보는 것과 믿는 것’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



음을 세심 강조하고 흔들림 없는 반석같은 믿음생활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이찬숙 목사의 한금기도, 직전 회장 심현일 목사(임마누엘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예약된 식당으로 옮겨 추어탕을 먹으며 담소하는 등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월례회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자신을 예수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한 것으로 역사가들이 전하는 데 특히 2장은 당시 교회가 직면한 이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론으로 이 말씀만 바로 이해해도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며 항상 보배력을 가지므로 개인이나 교회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순교로 생명이 끝났다면 그 삶의 여정의 끈고림이 많았을 터이지만 자신이 예수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는 사명에 전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선지자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우리들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거짓을 따른 결말은 그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생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멸망에 처해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성도로 혹은 사도로 주님의 일을 하고 나뉘므로 지랄할 만한 업적과 성과를 낸 다한들 신앙을 맞지 못한 다섯 처녀의 신체가 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축출하고, 능력이 행했다”고 강변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모른다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었기에 그간의 자기의 업적을 믿었지만 결론은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본문 1절에 그 이유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거짓은 항상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서 조심할 일은 요일 4:12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하는 대표적인 일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야 얼마든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내면의 세계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무섭고 조심할 일은 본인 자신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는데 “여럿이” 쫓겨 되는데 두 가지 현상을 말씀합니다.

호색하는 것과 진리의 도가 휘방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지에서라기보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탐심에 연루되어서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런 것을 분별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66년 역사, 한국교회의 130여 년의 역사, 기독교 2천년의 역사, 이 모든 과정에 거짓은 늘 함께 해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중요함과 시급성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아니 내 일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거짓에 빠져 멸망하는 예들을 보면 구약의 사건들부터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건지 못한 삶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에 약속 되었지만 현재적입니다. 약속된 구원은 생명의 원성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데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

한이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일 4:13-15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나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 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마음을 설레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말씀이 믿어지고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면 거짓을 끌어들이 이유가 없고 따라 다닐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들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 있어서 눈과 귀가 어두울 때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먼치 보이던 세상 것들은 당연히 축소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대답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를 우리들은 대부분 잘 압니다. 마 16:23에서 베드로는 유래없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 인가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베드로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고백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바로 거짓선지자들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시급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전 분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충만 받은 후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언행심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상존하는 거짓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 생각하면 거짓에 함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요 6:29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 할 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만 항상 있는 거짓을 분별하여 속지 않고 멀리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 정

진동용 목사 하와이서 성회인도



교단 직전총회장 진동용 목사(새소망교회)는 오는 8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미국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하와이 백향목교회 주최로 열리는 성령캠프 제10차 성회에 주강사로 초청받아 말씀을 증거한다. 이번 성회는 하와이 성안 토니오수양관에서 열리며 랜디아이에 아 목사와 지용음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한다.

'누가복음 주해와 설교' 논문 발표회



한국성경신학회(회장 박형용 박사)가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누가복음 주해와 설교’를 주제로 제38차 정기논문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 선 허주(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약신학)·송영목(고신대 신약신학) 박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나사렛대, 방학 맞아 해외봉사



나사렛대(총장 임승안) 해외봉사단이 하계방학을 맞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해외봉사를 떠난다. 봉사단원 30여명은 오는 7월 2일부터 22일간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탄자니아 수도인 다르에스살람 외곽 빈민지역에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와 학교 무료급식 봉사 등을 펼치게 된다.

미주 남침례회 반기열 목사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현지시각) 워싱턴주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반기열 목사(인디애나폴리스 한인침례교회)를 총회장으로, 최영이 목사(도버한인침례교회)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할랄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도 아니요 수출 신산업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수출회복을 위해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노력 강화 ▶혁신을 통한 소비재의 글로벌 프리미엄화 ▶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화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할랄 코셔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 중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의 할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부당함을 여러 문제점을 들어 지적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문제는 할랄 산업이 정부가 발표한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할랄산업 육성은 무슬림들의 일자리 창출이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인구 대거 유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불안과 종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 할랄인증과 유지에 위해 기업에 이슬람 율법에 종속시키고, 막대한 할 세납부와 국부유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만 일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17억의 이슬람 인구들이 반드시 할랄 인증식품만을 먹거나,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만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수인 근본주의 무슬림들을 제외한 세속적인 무슬림들은 제품만 좋으면 할랄과 비 할랄을 가리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영방송을 앞세운

할랄산업 과대포장 선전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익산의 할랄식품단지가 기업들의 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작년에는 사업의 철회까지 언급하지 않았는가?

둘째, 이슬람에 대한 잘 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기업의 할랄 인증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를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정책 실수요, 나쁜 특혜다. 육류를 제외한 농수산물은 모두 할랄 식품으로 할랄 인증이 필요치 않다. 또 인증요건은 국가별로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각 인증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할랄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권을 가진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종속될 위험이 다분하다. 할랄인증은 국가기관이 아닌 이슬람 성직자들이 세운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되고 감시되기 때문이다. 넷째, 할랄인증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슬람 교리 중, ‘나지스(najis)’에 근거한다. ‘나지스’ 개념은 어떤 물건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 산유국들이 이슬람 국가들은 유가 폭락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전으로 이슬람 산유국들의 미래도 어둡다. 오일머니의 신뢰는 끝났다. 산유국의 대부분 사우디도 돈을 빌려야 될 정도다.

여섯째, 일부 근본주의 무슬림들에 의한 심각한 테러는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다. 수니파 IS와 말로 이슬람 율법에 가장 충실한 무슬림들이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 외국인인 17만이고, 한국인이 3만5천여 명에

달하며, 사우디와 같은 수니파가 90% 이상의 절대 다수라고 한다.

일곱째, 정부주도의 할랄산업 육성은 심각한 종교편향이고, 종교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핵폭탄이 될 것이다. 할랄산업의 정부 주도 육성은 평화로운 다종교사회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불러들여, 국민의 혈세로 이슬람을 육성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다. 또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막중한 국민의 혈세를 할랄 기업에 지원하여 특혜를 베풀고, 이슬람 성직자들의 배를 채우는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이다.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경제성이나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이득보다 해로운 일들이 많은 할랄산업의 국내 육성은 철회하기 바란다.

홈페이지 :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지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	2년4학기(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비행행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사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말씀 묵상

김영식 목사 // 전라지방회장, 순복음 장선교회

사탄이 하는 일과 욕의 세 친구

(욥 1:1-5)

“우스 땅에 욕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욥1:1) 욕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욕은 자녀들이 잔치를 즐기는 것을 허락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그들이 도덕적인 위험 상태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가족들을 ‘성결케’ 했던 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욥 1:5)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욕을 사탄에게 자랑하셨는데, 사탄은 욕의 신앙도 많은 소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욕의 욕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그 무서운 욕도를 곧 실행에 옮기게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듯 그는 일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 다. 우선 그는 “발갈탄 소를 쳤고 그 곁에서 풀 뜯던 나귀까지 쳤습니 다”(욥 1:14) 그 다음에는 “번갯불을 일으켜 양과 종을 살라버렸고”(욥 1:16) “거친 태풍을 일으켜 욕의 집을 무너뜨렸으며 그 안에서 희곡하게 모여 식사를 하던 그의 아들들까지도 죽었습니 다”(욥 1:19).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 최대한 극한 상황까지 그 악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욕을 그 이상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은 순식간에 욕의 전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앗아가 버렸습니다. 욕은 엄청난 비극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욥 1:20).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탄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장 싫어하며,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의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탄은 진리에 대해 거짓말하고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어 주는 재물이 되지 않도록 더욱 믿음을 공고히 하여 하나님만을 좇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또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성장을 원하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겪어보아야 그 깊은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그 됨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해 우리는 큰 고난 가운데에서 비로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욕의 믿음의 연단을 보면,

다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욕에 대한 2차 시험을 한다. 사탄은 여호와께서 욕의 욕신을 치시면 욕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러난 사탄은 욕의 온 몸이 악장이 나게 하였습니 다. 이 모습을 본 욕의 아내 는 욕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하였으나 욕은 도리어 아내를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끊임없이 활동하며 그 영향력을 뻗치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 감지할 수는 없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산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단련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성경의 몇몇 곳에서 우리들로서는 감지할 수 없는 이 사탄의 활동과 그 영향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행위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순전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욕은 바로 그러한 행위를 보인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아들들을 모조리 잃고도 결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순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욕의 탄식

욕은 친구들이 찾아와 며칠이 지난 후 환난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일과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자기가 태어난 날 죽었으면 이러한 환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락하고 평안할 때는 장래의 소망과 두려움 또는 사랑과 분노와 그 밖의 감정들이 겹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마음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이 닥치면 그러한 감정들은 사람의 전체를 뒤론들고 밖으로 노출되어 각정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자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욥 3:23) 욕의 절망적인 신앙적 절규입니다. 욕은 갑자기 그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회의를 느끼고 번민에

빠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러한 번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바랄 정도로 비참한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죽기 보다는 오히려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욕은 살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인내는 힘이 들고, 지혜는 어려우며, 확신은 부족하고, 기쁨은 없으며, 마음은 심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 다.

친구들과 욕의 논쟁이 시작된다.

욕의 친구들 간의 세 가지 변론이 등장합니다. 변론의 형식에서 그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욕이 대단히 심각한 죄에 빠져있는 것, 즉 욕이 비밀리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 혐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욕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의 순수함을 주장하자 친구들은 분노하여 강렬하게 욕의 죄악을 거리낌 없이 들쳐 내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충고

엘리바스는 욕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교훈했으나 이제 그 일이 욕 자신에게 닥쳤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욕에게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엄중이 나쁘냐”(욥 4:2) 이 말은 누가 네게 충고나 언짢은 말을 하면 내가 노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자신의 충고가 듣기에 좋지 않더라도 노하지는 말라고 말하면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욥 4:7)라고 엘리바스의 변론은 자극히 피상적인 논리로 동정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타고난 종교인의 교훈과 같습니다. 이유는 욕이 먼저 자신의 생일을 탄식하고 저주하였고 그 말을 받아 엘리바스가 공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충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욥 8:7) 빌닷의 이 말은 만약 욕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의 부귀영화가 계속되었을 것이며, 그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번영하게 만드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정녕 하신 이에게 빌고”(욥 8:5)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정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욥 8:6) 라고,

세 번째 친구 ‘나아바 사람 소발’

그런데 소발의 지적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날카롭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욕의 세 친구 모두가 한 말을 한 셈입니다.

“네 말이 내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묵전에 깨끗하다 하는 구라”(욥 11:4)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아주 의기

여호수아
각론

문천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 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여호수아, 창조적 모방의 좋은 예

(수 1:5-9)

한국에서 유난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의 저서 <뉴스의 시대>라는 책은 여러 모로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주제는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뉴스를 제대로 보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전제하는 이 시대의 뉴스를 정치 뉴스, 해외 뉴스, 경제 뉴스, 셀러브리티 뉴스, 재난 뉴스, 소비자정보 뉴스 등으로 분류하여 각 분야의 뉴스를 읽을 때 요구되는 방법 혹은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셀러브리티 뉴스’ (celebrity news, 유명인사에 대한 소식) 장(章)은 나라 전체가 스타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저자는 유명인사에 대한 관심과 모방을 결코 저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역사에 늘 있던 일이고, 잘 활용하면 개인이나 인류사 변역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셀러브리티 뉴스 활용의 역사적 예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고대도시국가인 아테네는 정치가 페리클레스와 데모스테네스, 올림픽 권투선수 팔람폰, 전차 경주자 카브리야스, 음악가 멜라니피데스 등의 유명인사에 대한 찬미나 모방을 조정하여 시민의식의 진보를 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 셀러브리티 뉴스를 종교적으로 잘 활용한 케이스인데 - 자신들의 종교적 위인들을 성자(聖者, saints)로 추대하여 그들이 보여준 겸손, 너그러움, 순결, 고상함, 절제, 인내, 근면함 등을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종의 캠페인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명인에 대한 기사가 단순한 가십(gossip, 남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한탄) 거리로 소비되지 않고 삶의 교훈이나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사례연구)로 쓰인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유익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어난 셀러브리티들을 고작하여 소극적인 공급증이

양양하게 피력하면서 마치 욕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발은 욕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 받는 것은 욕이 그 같은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욕을 비난하고 공박하였습니다.

욕의 대답, 굶지 않는 믿음

“너희가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욥 12:2)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욥 12:3)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

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욥 12:7)고 욕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욕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도 있으며 선한 자들이 오히려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보다 훨씬 하등한 짐승들에게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소망이 없도다”(욥 13:15) 욕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욕이 그 당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참된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체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신앙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 것을 유지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 www. 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 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 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

주제 :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시 51:10)

모시는글

사랑하는 예하성 여교역자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구원을 위해
늘 애쓰시며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존경하며 한분 한분이 귀합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리더십을 향상하고 목회의 질을 높이며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0)라는 주제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 여교역자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교역자국 올림-

- |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 30일(화)
- | 장 소 | 은혜와 진리교회수양관(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 | 대 상 | 총회산하 전국 여교역자국 전회원(참가회비:일만원)
- | 접 수 | 2016. 8. 29(월) 13:00 ~ 13:50(예배 10분 전까지)
- | 연회비및 후원계좌 | 탁정신 목사(농협 356-1047-1351-03 탁정신)
- | 문 의 | 010-8541-0191 / 010-5313-33791 / 010-3784-3731

일 정 표		
시 간	29일(월)	30일(화)
오전 06:00 ~ 07:00	전국에서 전원성전으로...	새벽기도회
오전 07:00 ~ 08:00		아침식사
오전 09:00 ~ 09:30		찬양
오전 09:30 ~ 11:00		제2강 김피터 교수
오전 11:00 ~ 11:20		휴식
오전 11:20 ~ 12:30		폐회예배·설교 : 임종달 목사
오후 12:30		점심식사 후 집으로
오후 01:00 ~ 02:00	접 수	
오후 02:00 ~ 03:20	개회예배·설교 : 조용목 목사 기념촬영	
오후 03:20 ~ 04:00	자유시간	
오후 04:00 ~ 05:30	제1강 노재성 교수	
오후 05:30 ~ 07:30	휴식 및 저녁식사 (식사는 저녁6시부터)	
오후 07:30 ~ 09:00	부흥회·설교 : 조남영 목사	
오후 09:30 ~	교제의 시간·기도회	
	취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한국신학회 이사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대회장·부흥화설교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폐회예배설교



임종달 목사
증경총회장
전주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강사



노재성 목사
사이버신학연구원 교수

강사



김피터 목사
사이버신학연구원 교수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
전직 부총회장
대림벤엘교회 담임

대회준비위원장



탁정신 목사
여교역자국 국장
온선교회 담임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 각 지방회

2016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제: 'waken'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 벧전 5:8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 제4회 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6년 7월 25일(월) ~ 27일(수) 2박3일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
- 주 제 : 'waken' (벧전 5:8)
- 프로그램 : 만남(OT)&레크레이션, 경배와 찬양, 부흥회, 찬양콘서트, 특강, 우리교단 예체능, 캠프파이어, 발표(간증)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체 교회 중 · 고등부
- 등 록 비 : 6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선입금(선착순 마감)
- 접수 및 문의
 - ①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02)845-5095, FAX. 02)845-5097
 - ② 주강욱 목 사 : 010-8338-5095
 - ③ 이영옥 전도사 : 010-4206-4006
 - ④ 오경진 전도사 : 010-8789-0426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권용덕 목사
교육국장
철원순복음교회 담임신재영 목사
부흥사회장
세김전교회 담임사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선교국장조선남 목사
교육국 차장
대림벤엘교회오세준 목사
참좋은교회 담임주강욱 목사
대림벤엘교회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담임변원식 목사
청초교회 담임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담임

준비위원

오경진 전도사(대림벤엘교회)
강수용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이영옥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최철희 전도사(순복음아멘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한국교회의 역할과 위상회복 텃업운동 설명회

한국교회연합, 사회적 책임 감당운동 설명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지난 6월 27일 오후 5시 서울 흥대입구 메리골드호텔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주요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텃업운동 설명회를 가졌다.

한교연 텃업운동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용희 교수)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기성 총회 소속 수도권 목회자와 장로 80여 명이 참석해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한교연이 기아대책과 함께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하고 사회발전연구소를 설립해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이슈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이 운동에 기도와 후원을 요청드린다”며 “마음을 합해 주시고 좋은 뜻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가 주신다면, 한국교회가 텃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모든 면에서 확대되는 놀라운 물결이 일 아닐 줄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텃업운동 운영위원장인 양용희 교수는 텃업



운동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개교회별로 7~8월 중 주일 하루를 ‘텃업주일’로 지켜 줄 것과, 기도와 함께 성도가 자발적으로 후원헌금에 동참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텃업운동은 한국교회 위상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감당을 위한 운동으로, △한국교회 갱신과 사회 문제 해결 및 봉사를 위한 기도협력운동 △성경 말씀에 따른

성도의 올바른 삶을 위한 운동 △생명 존중, 가정 회복 및 사회 통합, 빈곤·폭력예방 등 한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운동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교연 텃업운동 운영위원회는 서울지역 텃업 설명회에 이어 7월 4일(월) 오전 11시 전주바울교회(원팔연 목사 사무)에서 전북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텃업운동 설명회를 가졌다.



우간다의 마지막 불모지 카라모자 아이들을 만나다

〈2016 희망로드 대장정 Road for Hope〉2편

2016 희망로드 대장정 그 두 번째 희망국 - 우간다 카라모자

천혜의 자원으로 불리는 빅토리아 호수로 둘러싸인 신이 축복한 아프리카의 기름진 땅, 우간다. 하지만 같은 우간다 땅 안에서도 불모지로 불리는 지역이 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차로 700km, 12시간 떨어진 곳 “카라모자”다.

마음마다 요새 모양을 한 카라모자의 첫인상은 세상과 단절된 ‘내륙의 섬’이 연상된다. 농작 수확이 어려운 토질 탓에 목축으로만 연명을 해야 하는 땅. 하지만 살기 위해 하는 목축업이 카라모자의 불행의 물고 왔다. 그 비운의 씨앗이 된 이름은 바로 “케틀레이딩” 목축만으로 식량을 충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부족 간 소 약탈을 시작했고, 서로 간의 불신과 충돌이 낳은 것이 바로 “케틀레이딩”인 것이다. 깨닭에 절고 힘 있는 어른들이 모두 서로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은 카라모자. 지역 주민의 72%가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보건 영양, 교육과 식량 안보가 우간다에서 가장 열악한 땅!

우간다 최빈곤 지역, 마지막 불모지 “카라모자”를 [희망로드 대장정]이 찾아갔다.

〈내륙의 섬, 가장 낮은 곳의 아이들〉

- 단돈 300원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고아들

“손으로 땅을 파서 엄마 무덤을 만들어 묻고, 한 살배기 동생을 업고 사흘밤낮을 맨발로 걸어야 해요. 그리고 엄마 젖을 찾으며 우는 동생에게 빗물 밖에 먹일 게 없었어요.. 그 날 결심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동생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 13살 소녀 가장, 나끼루 인터뷰 中

우간다는 어딜가든 고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24년에 걸친 오랜 내전의 흔적이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카라모자에 만연한 소를 둘러싼 분쟁 - 케틀레이딩 때문이다. 비옥하기로 유명한 우간다의 유일한 불모지, 초목 속에 숨겨진 척박한 땅인 카라모자엔 소도둑들에게 부모를 빼앗기고 스스로 일터로 나온 아이들이 즐비하다. 아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오늘도 굶지 않으려면 일을 나와야만 한다고..” 이런 아이들의 일터는 한 없이 열악하고 위험하기만 하다. 금



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사금 채취 현장. 아슬아슬한 2-3미터 높이의 카다란 땅굴 아래, 아이들의 맨손 맨발로 모래알보다 작은 금가루를 찾고 있었다.

눈을 찢고 보아서 우리 눈에는 헝서리 보이지 금, 금을 찾아 헤매던 아이들 중, 영양실조로 통통 부은 한 살배기 동생을 들쳐 업은 13살 소녀가 나끼루를 만났다. 나끼루 역시, 3년 전 소도둑 케틀레이더들의 충격에 아빠를 빼앗긴 아이였다.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엄마가 있었기에, 매일 한 끼를 술찌개미 한 주먹으로 연명해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왔다는 아이. 하지만 두 달 전, 엄마마저 일터에서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뒤 나끼루의 눈엔 온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차 버렸다. 엄마가 죽은 장소에서 한 살배기 동생을 들쳐 업고 사흘밤낮을 걸어 나머지 동생들이 있는 마을로 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나끼루. 하지만 나끼루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동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위험한 사금 채취장에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 나끼루는 촬영진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면 말하고 싶어요. 대체 우리들이 고통 속에 놓아두고 먼저 가신 거냐고..”

우간다 아동노동 인구 240만명, 그중 170만명이 14세 미만

일터에서 다리를 다쳐도, 피부병으로 발이 썩어 들어 가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아들. 오늘도 살기 위해, 먹기 위해, 변변한 연장 하나 없이 맨손으로 동생을 업고 일터로 나오는 고아들.. 한 끼에 목숨을 건 우간다 카라모자 고아들의 울음에,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7월 9일 오후 5시50분 KBS-1TV 2016 희망로드 대장정 - 월터전

한국공공실천포럼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장헌일 박사,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과 공공실천 시급” 지적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생명나무교회 목사)는 지난 4일 마포구 광성로 생명나무교회에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최 한국사이버 박물관연합회가 주관한 한국공공실천포럼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주제특강을 전했다.

장 박사는 “한국교회 공공회성 회복과 공공실천을 위한 공공·사회와 마을교회공동체 운동”이라는 주제로 “한국 교회 불신의 근원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 부도덕성을 하나의 근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후 “윤리와 도덕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과 교회 홍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닌 진정한 있는 사회봉사와 진정한 사랑을 담은 구제가 신뢰회복의 근거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박사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한국 교회가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참된 영성으로 부와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도덕성으로 비르고, 의롭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상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 성장지향주의,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 분리, 번영복음에 입각한 기복주의 신앙 등에 몰든 간감치 못한 교회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된 강단 설교가 선포되며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부차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박사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공공회성 회복을 통한 공공성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 교회주의에 매몰되어 교회의 공공회성 회복과 공공성 실현에 집중하지 못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교회가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변환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어 김화영 목사(나다공동체 대표)는 “나다공동체와 영성운동”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고 수많은 정보와 상처와 중독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서 우리에

게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에 설사 죽음의 상태에 놓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박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죽음의 문화의 잔재들을 씻어내야 하며 이 씻어내는 과정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온 우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에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생명나무를 품은 하나님의 작은 밀알과 같다”고 전하고 “그 밀알이 땅에 퍼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 우리는 거듭나면서 동시에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공실천포럼 창립기념세미나는 7월 11일 김연태 목사(우리교회)가 우리갤러리처지 마을운동을 주제로 7월 18일 이원돈 목사(부천새문교회)가 ‘탈성장주의 시대 교회의 대안은 교회의 공공성이다’라는 주제 특강이 부천 새문교회 현장에서 있게 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7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6.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6. 9. 8(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6. 9. 22(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6. 8. 31(수)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7. 2. 20(월)~2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조남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최형택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세상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노래

월드비전 합창단, '제 6회 월드비전 2016 세계어린이합창제'



요르단 난민캠프에 살고 있는 약 63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 지난 5년간의 장기 내전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길 위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고 있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이들에게 다짐 여섯 번째 겨울에 따뜻한 평화를 선물하고자 '세계어린이합창제'를 기획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에서 만든 어린이합창단 월드비전 합창단(원장 박종규)이 8월 6일부터 11일까지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라는 주제로 '제 6회 월드비전 2016 세계어린이합창제'를 개최한다.

지난 2000년부터 3년에 한번씩 개최하여 올해로 6회를 맞는 '세계어린이합창제'는 각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어린이합창단이 모여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고,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합창제다.

지난 5회 동안 총 35개국 40여 개 팀이 참가, 각국 민속 음악에서부터 클래식과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 음악을 선보였으며, 국내 합창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행사라는 평을 받았다. 수익금 일부는 전쟁(내전)지역 아이들을 돕는 사업, 거리아동센터 지원사업, 식수사업 등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쓰였다. 올해는 특히, 요르단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서북부 지역 시리아 난민을 위한 '방한 구호물자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계어린이합창제에는 200여 명의 월드비전 합창단 전 단원은 물론 형거리 <한테무스 어린이합창



단, 노르웨이 <디프로스트 청소년합창단>, 인도네시아 <코르다나 어린이-청소년합창단>, 필리핀 <해일 메리더 어린이합창단>, 미국 <크리스탈 어린이합창단> 총 6개국 5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특히 형거리 <한테무스 어린이합창단>은 2000년 첫

회 세계어린이합창제 이후 두 번째 참가하는 팀으로 40년 역사를 이어 온 합창단이다. 전통음악에서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합창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데네즈 스즈보(Denes Szabo)의 지휘 또한 기대된다.

8월 6일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외국어린이합창단들의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11일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폐막식이 열릴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개막공연을 제외한 이번 공연의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interpark.com), 예술의 전당 티켓(http://www.sacticket.co.kr)에서 6월 30일부터 예매할 수 있다.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성료

기도와 찬양,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진 축복의 세미나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분(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 주최하고 CTS기독교TV, CBS, EBC극동방송 예정교회가 공동 후원한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지난 6월 20일(월)부터 22일(목)까지 서울 예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됐다.

세미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한 사모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축복의 세미나였다.

정필도 목사 사모인 박신실 사모는 남편의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성도가 사모 자신이라고 말씀을 전하며 목회자 사모들이 남편 목사의 설교에 제일 은혜 받아야 함을 전했고 오랜 세월 남편의 설교 내조자로서 남편 목사님을 도왔음을 전하며 목회자의 내조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날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중국 란조 한인교회 성경옥 사모는 "강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고



소명감과 사명감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 진행하며 저녁 주강사로 말씀을 전한 설동욱 목사는 "참 많이도 울고 많이 웃었던 3박 4일입니다. 이번 제22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나는 3박 4일이 마치 하루처럼 짧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 세미나였습니다."고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내년 제23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2017년 6월 19일(월)~22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수 선, '은총이' 위한 감동의 시범포수로 나서

희귀난치병, 불치병 9가지를 갖고 태어난 은총이 돕기위해

지난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에 앞서 가수 선이시포(倂수)를 맡았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모금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선은 "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를 해 주고 은총이 수술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은총이 삼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 왔다"며 두 팀에 감사사를 전했다.

은총이는 '스티지 웨버 증후군', '클리펠 트레노우네이웨버 증후군', '오티모반 증후군' 등 희귀난치

병과 불치병 9가지를 갖고 태어나 시한부 선고로 받았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선은 은총이를 5년 전에 만나 합계운 부평생활을 하는 은총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아픈 아이들을 위해 국포대장정에 나서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해 완주하는 등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은총이의 아버지인 박지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부자의 발이 되고 심장이 되어 주신 하나님! 무사 완주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라고 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2016년 7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인천 열린문교회에서 박영수 목사를 강사로 가족세트컨퍼런스를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7월 한 달 동안 전도는 하는데, 오늘이 첫 날이었다. 오늘까지 전도에 대한 설교와, 전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은 교회 밖 눈에 보이는 사람 모두가 전도 대상자이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다. 전도 대상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실천적으로 내 몸을 앞세워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오늘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오전에는 박영수 목사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며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직접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영상을 보고, 박영수 목사의 강해를 들었다. 영상으로만 봤을 때, 전도팀과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전도하며 전도를 받아서 잘 짜여진 영화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아니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내가 교회 문 앞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교회에서 50m도 채 떠나지 못해서 어떤 한 사람을 둘러싸고 박영수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 사람의 성함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가족관계까지 모두 받았다. 3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영상으로만 보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니 확실히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과 직접 보고 듣는 것은 달랐다. 박영수 목사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나 자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도 답대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또 30m도 가지 못해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도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분도 걸리지 않았다. 무려 15분 안에 교회 앞에서 100m도 벗어나지 못해서 3명의 성인과 3명의 청소년을 만나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성함과 생년월일과 주소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얻었다. 한 영혼을 만나고 다른 영혼을 만나기까지 20m도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사정이 없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영혼 모두가 전도 대상자였다.

무엇보다 가장 기뻐한 시간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했던 전도였다. 평소보다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려있었는데, 전도팀 모두 점심을 그 가게에서 먹고 그 가게를 나가기 전, 우리 교회 학생의 어머니에게 동일하게 복음전도가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기도를 받으면서 영접기도까지 따라했는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박영수 목사의 전도에 이어 우리 교회 담임 이창복 목사와 백화자 사모의 기도까지 이어졌는데, 모두 웃는 얼굴로 다 받은 것이었다. 정말 감사했고, 그 가게에 축복까지 붙이고 함께 사진 찍은 것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게 보내주었다. 학생도 함께 기뻐하며 가족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었는데, 그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로서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하루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다. 교회에서 출발한 지 거의 2시간 만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오늘 전도를 통해서 내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훈련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해야겠다는 점이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전도에 대해 더욱 열심히 힘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음전도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하는 바이다.

인천 열린문교회 전도사 전열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생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 유입해 비단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19,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국토방위 장병 예수 사랑으로 위로, 한우 한 마리 등 전달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동부전선 22사단 위문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용주 목사)는 지난 6월 28일(화) 오후 2시 동부전선 22사단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장병과 사랑의 교제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하여 정해진 시간에 22사단 교회에 도착하여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이날 예배는 동협회의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 김영길 목사의 기도, 이상용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샅 7:78 말씀을 본문으로 '멋진 군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드온의 삼백勇士처럼 슬기롭고 용감스런 멋진 군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제22사단장과 이하 부대 군인을 위해', '군부대선교를 위해', '남북통일을 위해' 공병철 목사, 서한철 목사, 홍정선 목사, 김혜순 목사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는 제22사단에 한우 한 마리와 빵, 음료, 캔 커피 등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광고,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사단장을 비롯 지휘관들과 환담했다.

이날 한우 한마리는 기독교교단협의회 실업인위원회장 홍정선 목사가 선했다.



하나님의 창조 신비에 감사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7월(목) 야유회를 갖고 바쁜

목회지역 가운데서도 지방회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품과 같은 자연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회원들은 출발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회원 교회를 위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통영과 거제를 거쳐 소매물도를 둘러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크고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렸다.

회원들은 그림 같이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활짝 핀 수국과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며 하나님의 창조 신비에 감사드리고 회원들과는 대화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영적인 힘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일정을 마치면서 서로의 힘을 한 데로 모아 하반기 지방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윗과 같은 사역자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김중곤 목사)는 지난 7월(목) 오전 11시 군산 생명나루교회

(담임 윤경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하반기 사역점검과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원들은 동성애가 근절 되도록 차별금지법이 무력화 되도록, 할랄식품단지 조성이 철회되기 위해 한바탕으로 기도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제2회회장 양영석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김훈배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중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삼하 23:13-17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사람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다윗과 같은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재무 겸 회계 심혜원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 중경회장 고현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명나루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요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7월 4일(월)부터 5일까지 양일간 경

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갖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큰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었다.

지방회장 이성석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일에서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교육부장 황용식 목사의 준비로 이루어진 강습회는 어느 때보다 은혜 받고 성령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초청강사인 이병렬 목사는 경북 거창 지역에서 주일학교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은 주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이를 통한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절대적 기도생활을 부탁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심정으로 충성을 다해 봉사할 것을 권면했다. 영남동지방회 목회자와 교사들은 함께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복음산교회 제직 임직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 순복음복음산교회(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율달길 1. 담임 윤득주 목사)는 지난 6월 19일(주일) 오후 4시 영남동지방회 주관으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예배에는 영남동지방회 회장 이성석 목사의 설교와 영남동지방회 중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사, 영남동지방회 직전회장 오경덕 목사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품(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목양의샘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대성교회담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떠난 사람

목회자들은 주의 종으로서 헌직에 있을 때에 남들이 닮고 싶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사명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도 그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의 말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인물이 있다. 압둘 칼람(Abdul Kalam)의 이야기로, 그가 사망했을 때에 인도의 12억 인구가 7일간 애도 기간을 가졌으니 말이다.

그는 인도의 제11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이제 곧 그의 서거 2주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7년 임기 5년을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는 어느 대학 강단에서 강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83세를 일기로 타계했는데 그가 남긴 유산(遺産)이 양복 3벌 바지 4벌 구두 두 켤레와 책 2,500권이라고 한다.

기난한 학자의 유품이라고 해도 믿기지 않는다. 성직자도 아니고, 더욱이 인구 대국 인도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유품이라니.

그런데 정작 그가 남긴 중요한 유산은 따로 있다고 한다.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것이다. 감동적이다. 그가 유언처럼 남긴 빛나는 유산의 명언 몇 가지를 적어 본다.

“이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학교 교실 맨 뒷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태양처럼 빛나고 싶으면 먼저 태양처럼 불 타라”

“꿈이란 잠잘 때에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한다”

자기의 결혼식 일시를 잊어버려서 결혼을 못한 이후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과학자로서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이며 금욕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다. 국민들의 지지 속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다. 기인(奇人)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진정 위인(偉人)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인도청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떠나간 이 분이 우리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한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아는 이들이라면, 필자 말고도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아니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 권력자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권력은 위임받은 제한적인 힘이다. 그 권력은 직임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절제된 힘이어야 한다. 그런데 직임을 얻으면 그 힘을 함부로 쓰려는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 정치 70여 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세상의 일은 그렇다고 하여도 복음의 일은 달라야 한다. 거룩하신 예수님께 복음의 일을 위임받은 주의 종들은 달라야 한다. 성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세상일들과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음 전할 사명과 그 미션이 무슨 권세의 자리라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왜냐 많은 주의 종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대신 부끄러워하는 종들이 많다. 교단 정치 싸움은 너무도 추악해졌다. 모든 권모와 술수가 다 동원된다. 믿기지 않는다.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다.

로마감독 그레고리(Gregory I)는 말하기를 자신은 ‘주의 종들의 종이다’ 라고 했다.

목회자들은 주의 종으로서 헌직에 있을 때에 남들이 닮고 싶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사명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도 그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중생활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세속권력의 정점에서 하저한 후에, 마지막 떠난 길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만을 남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떠난 먼 나라 사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뒤에 남겨진 사람들, 너무도 힘든 복음사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주의 종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야 할 사람들에게 고하는 고언(告言)이다. 불완전(不遑聞)에 필자 자신도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사설

솔선수범(率先垂範), 성도들이 희망이다

17일 제헌절 68주년, 27일 군사정전협정 63주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돌아보고 반성을 촉구(催促)하는 기념일들이 또 왔다. 제헌절은 오늘 우리 사회의 질서와 준법상태를 되돌아보게 하고, 군사정전(휴전) 기념일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아래 살아가는 우리 국민 각자의 정신상태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는 기념일 들어라 할 것이다.

그 사회의 준법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무질서로 퇴보하는 사회가 되고, 이러한 병통이 고쳐지지 않고 악화 일로를 간다면 결국 망국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지난 6월(수) 평일, 우리나라의 중심부요 얼굴이라 할 세종로 대로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전국 회원들 1만4천여 명이 총파업 결의 대회를 내세우고 도로 불법점거 시위를 벌여 막대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들 중 3천여 명은 밤 자정께까지 서울 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고, 그들이 지나간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인도에는 빈 소주병과 김밥 포장지, 담배꽂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집회는 대로상에서 불법으로 자행되었음은 물론이고 경찰력도 역부족이라 의법 단속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어떤 분은 서울역에 열차를 타러가야 하는데 버스가 막혀 열차시기를 놓쳐버렸고,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러 나섰던 회사 직원은 차갑이 막혀 회의를 하지 못하고 말았다 한다. 이와 유사한 불법 시위들은 주말이면 거의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서울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무너진 수치스런 한 단면이다.

요즘 일어난 저 부산의 학교 지키기 경찰관 여고생 검타사건, 이른바 ‘정운호게이트’라고 하는 전직 부장관사·부장감사의 탈세 거액 수임료 사건, ‘민변’이란 좌파단체가 저지른 탈북자 위협사건,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적법한 일로 받아들이는 관사사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 사건 등등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스스로 위법·불법·탈법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참으로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통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수긍되어 넘어가고 있음을

본다. “불법, 비법, 무법, 탈법, 위법, 그 위에 때 법이 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자주 섞인 개탄을 하면서도 ‘내가 먼저 법을 지켜야겠다.’는 뼈저린 반성에는 인색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다. 지난 63년 역사에서 북한의 휴·정전협정위반 건수는 40여 만 건에 이르고 주요 무력 도발사건은 221회나 된다고 한다. 휴전선의 대치는 하루도 남북의 긴장이 해소된 일은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요즘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중화기를 설치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휴전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 휴전이란 단어는 문서로만 남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안보적, 사회질서적 긴장상태가 해이되어 있음도 여실하게 나타나 있다. 한 시가 급한 휴전 상태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매일 살아 가야 할까?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긴장과 모범으로 사회질서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법질서를 지키는 준법 사회는 그 사회 성원 각자가 솔선수범(率先垂範)을 몸에 붙이고 다니며 실천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솔선수범이란 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먼저 법을 준수하는 모습이다. 역사상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들도, 독재 군주들도 스스로 몸을 낮추고 백성과 국민을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 허다하다.

누가 우리 사회의 해이된 준법질서와 정신 상태를 바로 세우는 솔선수범자들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 희망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하였고, 스스로 손해 보더라도 먼저 법과 질서를 세워야 나라의 위기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병 어린이 회복 만찬회, 7개국 8백여 명 새생명 찾아

한국구세군, 몽골·필리핀·키르기스 어린이 19명 초대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지난 7월 1일 해외 심장병 치료 어린이 축하 만찬회를 가졌다. 한국구세군의 심장병 어린이 치료사업은 올해로 21주년째이다.

1995년 국내 아동 34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심장병 어린이 치료사업은 4년 뒤 중국 동포 어린이들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금은 몽골, 필리핀, 키르기스 공화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7개국 심장병 어린이들 800여 명이 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찾았다. (2016년 현재까지 812명 수술)

이번 심장병 치료 어린이 축하 만찬회에는 2016년 6월 입국하여 심장병 수술을 받은 몽골 어린이 8명과 필리핀 어린이 6명, 키르기스 공화국 어린이 5명 등 총 19명의 어린이들과 그 보호자들이 초대되어 아이들의 건강한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만찬회를 마친 후에는 해외 심장병 수술 어



린이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서울 잠실의 아쿠아리움을 견학하는 나들이 행사도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구세군의 관계자는 20여년간 계속 되

어온 따뜻한 사랑 나눔을 통해 생명의 불씨가 살아나고, 꽃이 활짝 피어나듯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감회를 밝혔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채원위원장 조옥몽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새성전입당 감사예배

일시 2016년 8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113번지) 010)2415-2062

강사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 준공 감사예배



■ 강사
조용목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 당회장
김상용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증경총회장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2016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장소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85 / T. 043-279-9900)